

SK에너지, 3년간 영업이익 증가세

신현철 사장, 석유개발 성과물 기대 ... 석유화학 2011년 이후 상승

SK에너지는 앞으로 3년간 석유개발부문 성과와 인천정유 고도화시설 완공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SK에너지 신현철 사장은 SK빌딩에서 열린 상반기 실적설명회에서 3년간 강한 이익 증가세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도 휘발유 상황이 좋고 석유화학 경기도 2011년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등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2009년부터 페루 56광구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2010년에는 예멘 LNG와 페루 LNG 사업에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2008년부터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가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 BMC-8 광구는 현재 시험 생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화되면 9200배럴이 추가돼서 하루 평균 생산량도 2만배럴에서 2만5000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천정유의 고도화 시설이 1년 후 완공되면 관련 이익이 급증해 석유화학 경기가 2009년부터는 하락하겠지만 과거처럼 손실이 나는 수준은 아닐 것이며 2011년 이후에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동 지역에 에탄크래커가 들어오더라도 몇 년 후에는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휘발유 마진 강세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서 승용차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1억대를 넘어서면 휘발유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은 증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2007년 초에 내놓은 실적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일단 3/4분기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중국 Sinopec과 합작해 우한에틸렌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허가가 남아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인도네시아 Pertamina와는 Gpex 제품을 만들어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것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Pertamina에서 20만배럴 정유공장을 설립해줄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호 SK홀딩스 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갖추려면 SK에너지 주식을 최소 3% 더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주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원칙 아래에 교환, 공개매수, 유상증자, 현금매입 등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5>